

전북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 '113'

전북상협 조사 결과 3분기 만에 기준치 상회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제조기업들은 올해 2분기 경기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1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08개 제조업체에서 응답한 2024년 2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113'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2분기 경기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이면 반대다. 업종별 전망치를 보면 화학(114) 업종이 조사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105)와 섬유류(111), 식음료(110) 업종 또한 기준치 '100'을 넘었고, 그밖에 전기전자(100), 종이나무(100), 기계금속(87), 비금속광물(75) 업종은 보합 또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

사됐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BSI가 '113'으로 2/4분기 경기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112)도 기준치 '100'을 넘어 2분기 호전을 예상했다. 매출유형별로는 내수기업은 '115'로 기준치 '100'을 넘어 2분기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기업은 '100'으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상승해 보합으로 조사됐다. 김경태 전북상협 회장은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조업 정상화와 생산활동 증가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소비심리개선에 따른 내수회복이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왕성한 기업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내수시장 활성화, 기업의 원자재 가격 부담 해소 등에 정책적 역할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욱기 기자



남원농협, 우수농협상 수상

2023년 농협종합평가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2023년 농·축협 종합평가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평가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신용, 경제, 교육지원사업 등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남원농협은 지난해 상호금융예수금 8천억원 달성, 하나로마트 매출 300억 달성, 지도사업 종합평가 전국 1위, 제35회 N농

협생명 연도대상 전국 2위 및 전북상호금융 총예수금 전진 프로모션 1위를 수상 하는 등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업과 조합원 회원 사업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남원농협을 사랑하고 애용해 주신 고객 및 조합원이 만들어 주신 영예로운 상이라며, 더 큰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에 보답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제1회 전북도 토목의 날' 행사 개최

도내 산·학·관 토목인들의 소통·화합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직원들의 인적외식 강화와 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토목의 날' 행사가 지난 3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토목학회 회원,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 및 토목공사업 관계자와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토우회 회원, 토목전문 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토목의 날' 행사가 지난달 3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토목학회 회원,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 및 토목공사업 관계자와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토우회 회원, 토목전문 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토목의 날' 행사 개최는 전북지역 경제발전과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도내 각지에서 묵묵히 재직하고 있는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과 지역건설산업에 근무하는 지역 토목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학회와 도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뜻을 모아 개최하게 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도지사 표창 15명, 종합건설협회장 표창 7명, 전문건설협회장 표창 7명 총 29명에 대한 표

창과 더불어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의 '포스트블 에방대책'과 군산대학교 원명수 교수의 '토목설계 유튜브 연결 구조체의 시공방법'의 기술세미나 시간을 가졌다. 또 서로 간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과 명랑운동회 등의 친목행사로 도내 산·학·관 토목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하여 전북건설업을 위해 상반기 70% 조기발주와 지역업체의 우수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와 함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준 건설단체와 토목 기술인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소재별 종합건설협회장은 "우리 건설산업을 지탱해 온 당당한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임근홍 전문건설협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함께 이루자며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며 토목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김욱기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직원들의 인적외식 강화와 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30조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4대 분야에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바이오진흥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 이어나 전문강사를 초청해 사례 중심의 설명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양성평등 가치관 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직장 문화를 제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욱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농협, 2024년 쌀 적정생산 추진 결의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9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운영전북협의회(회장 최승운) 회원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쌀 적정생산 추진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전북협의회 사업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승인 △규약변경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하였다. 또한, 급차 정기총회에서 최근 쌀 가격 및 수급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2024년도 쌀 적정생산 추진 정부

정책 방향과 비 재배면적 감축 방안, 쌀 산업 발전을 주제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략작물직불제, 타작물 재배 등 2024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 재배면적 감축 홍보를 적극 실시해 전북농협 감축목표인 3,706ha를 달성해 쌀값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차농협 최승운 협의회 회장은 "갈수록 좁아드는 쌀 소비로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다며 전북 쌀 홍보와 쌀 값 안정 및 수급 균형이 될



전북농협은 지난달 29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쌀 적정 생산 추진 결의 대회를 가졌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농어촌공, 저수지 재해 대응 강화 준설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뭄·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저수지 준설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의 퇴적물을 파내어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해 가뭄을 해소하고 홍수 대응 능력을 높여 준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3,429개소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88%에 해당하는 3,024개소로 노후화되어 있고, 장기간 토사 퇴적으로 물그릇이 작아져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대응 능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전년 대비 400억 원 늘어난 43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해 용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저수지 준설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수 관리 능력을 높인다. 공사는 저수지 준설 신규 지구로 60개소(291억원, 179만㎡)를 우선 준설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장수 매동저수지 준설 예산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 매동저수지 준설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 9월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전했다. 매동저수지는 퇴적토사가 많고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저수지로서 그동안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예산확보를 추진하던 중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기가 마무리되는 9월말경 저수지 준설을 시행하게 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